

국내 작가 창작동화·그림책 1



《같이입는 피부》

조은수 글·그림 | 아이세움 | 88쪽 | 값 7,000원

우리 피부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 일러스트레이터 조은수 씨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해 아이들을 흥미진진한 피부의 세계로 안내한다. 사실적인 그림에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장난스런 그림들은 우리 인체를 둘러싼 "왜?"라는 질문에 유머러스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물 속에 오래 앉아 있다가 "어라? 찌글찌글해졌네"라며 제 손바닥을 펴보는 인물부터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인물까지 몸의 변화를 느끼는 인물들의 표현도 재미있다. 조은수 씨는 이로써 우리 피부의 '저절로 재생 시스템', '무적의 막강 보호 시스템' 등을 설명해준다. 유쾌한 과학만화를 보는 듯하다.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이금이 지음 | 원유미 그림 | 푸른책들 | 180쪽 | 값 6,000원

제목 그대로 '단지 우리와 조금 다른' 장애아 문제를 다룬 책.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수아와 그런 수아를 돌봐주어야 하는 사촌 영무의 갈등을 그린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장애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둬낼 것을 충고한다. 특히 점점 수아를 귀찮게 생각하는 선생님, 장애가 있는 소녀를 부끄럽게 여기는 할아버지 등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까지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빠와 토스트》

원유순 지음 | 김옥재 그림 | 두산동아 | 128쪽 | 값 7,000원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 가구공장에서 나무를 절단하다 손가락이 잘린 아빠가 일터를 잃고 노숙자로 생활하게 된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 아버지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토스트 장사를 하는 아버지에게 급식비를 내달라고 말하지 못해 선생님 지갑에 손을 대는 훈이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그려져 있다. 진한 가족애를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나쁜 어린이표》

황선미 지음 | 권사우 그림 | 웅진닷컴 | 94쪽 | 값 6,500원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를 아이들의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는 책.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잘 알려진 황선미 씨의 동화로 잘못을 저지른 어린이에게 주는 '나쁜 어린이표'를 소재로 한 이야기다. 무조건 결과만을 보고 평가하려는 선생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우리 아이들의 심리를 그려냈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잘 그려내면서 어른들의 문제까지 지적하는 수작이다.



《용감한 꼬마 생쥐》

김서정 지음 | 이광익 그림 | 보림 | 48쪽 | 값 6,500원

어린이책 평론가로 알려진 김서정 씨의 창작동화. 엄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힘을 자랑한 형들과는 달리 소박한 마음과 지혜를 발휘한 막내 쥐 이야기를 통해 '용기'의 의미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 용, 감, 한, 꼬마, 생, 쥐라고 불리는 일곱 마리 생쥐 이야기를 리듬감 있는 문장으로 써내려가 읽는 즐거움까지 더하고 있다. 표정이 살아 있는 그림도 눈여겨 볼 만하다.

《무너리네 엄마 개순이》

김향이 지음 | 백병식 그림 | 두산동아 | 96쪽 | 값 7,000원

《달님은 알지요》로 알려진 김향이 씨의 단편집. 표제작인 《무너리네 엄마 개순이》는 슈퍼집 개인 개순이가 아홉 마리 새끼 중 하나인 무너리를 잃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동물들에게도 제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본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따뜻한 동화다. 이 밖에 《아버지의 꿈》, 《산과 들과 강이 키우는 아이》 등 4편의 단편동화들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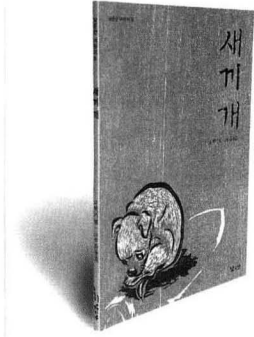
《아주 특별한 우리 형》

고정욱 지음 | 송진현 그림 | 대교출판 | 164쪽 | 값 6,800원

뇌성마비에 걸린 형을 둔 가족의 이야기. 외아들인 줄 알았던 종민이는 어느 날 자신에게 뇌성마비에 걸린 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형이 나타나자 당황하지만 조금씩 형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종민이와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아픔과 그들을 바라보는 이웃 사람들의 시선 등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게 해주는 책이다.

자꾸만 읽고 싶은 우리들의 이야기...

국내 작가 창작동화·그림책 2



《새끼 개》

박기범 글 | 유동훈 그림 | 낮은산 | 60쪽 | 값 6,800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며 바그다드로 향했던 동화작가 박기범 씨의 창작동화. 새끼개 한 마리의 짧은 인생을 냉정하고 묵묵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심 없이 지속되는 관계들이 얼마나 무서운 폭력을 만들어내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무조건 예쁘다며 새끼개를 안아주고, 쓰다듬기 바쁜 아이들이 오히려 새끼개에게 고통을 주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철학적인 책이다. 행복하고 예쁜 소재의 어린이책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바나나가 뭐예요?》

김기정 글 | 남은미 그림 | 시공주니어 | 110쪽 | 값 7,000원

영동하고 독특한 옛이야기 읽기의 즐거움을 전해주는 동화. 바나나가 무슨 과일인지 모르던 시절, 산골 마을에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완성했다.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먹는 방법을 상상해 내던 사람들의 순박함이 돋보이며 우연히 눈앞에 나타난 바나나를 몰래 간직하고 싶어 했던 마을 사람들이 결국엔 도둑이 되어버렸다는 결말을 통해 황당한 웃음까지 전해준다.



《아씨방 일곱 동무》

이영경 글·그림 | 비룡소 | 32쪽 | 값 8,000원

《규중칠우쟁론기》를 원작으로 한 책으로 옛 바느질 도구들의 쓰임새를 소개하고 있다. 빨간 두건아씨의 바느질 동무자, 가위, 바늘, 홍실, 골무, 인두, 다리미 등은 각각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바쁘지만 결국엔 모두 각자 소중한 존재이며 서로 힘을 합해 상호존중했을 때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걸 알게 된다. 화합의 의미, 더불어 사는 의미 등을 전하는 이야기다.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

위기철 지음 | 이희재 그림 | 사계절 | 224쪽 | 값 6,500원

생명의 가치와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화. 주인공 '생명'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죽고 싶어 하는 토담이를 찾아와 어린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아들을 저세상으로 보낸 엄마의 절망에 찬 눈물, 돈으로 생명을 사려 하는 영감의 어리석음, 생명을 죽이는 로봇을 좋아하는 무서운 마음 등을 보게 해준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책이다.



《우리 몸의 구멍》

허은미 글 | 이혜리 그림 | 돌베개어린이 | 50쪽 | 값 7,500원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책.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아이들의 심리를 반영해 눈, 코, 귀, 입 등 우리 몸의 구멍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어린이가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활 속 예를 들어 인체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신기한 것 투성이라며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기 좋은 책이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호백 글·그림 | 재미마주 | 32쪽 | 값 7,500원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날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닌 토끼의 하루. 토끼는 사람처럼 식사도 하고, 장난감도 갖고 놀고, 화장도 해보고, 예쁜 옷도 입어보면서 신나는 하루를 보낸다.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향하는 토끼. 그렇지만 놀면서 싸는 토끼똥은 그동안 토끼가 어떤 짓을 했는가를 다 보여준다. 아이들처럼 하고 싶은 게 많은 토끼의 행동들이 천진난만하게 그려졌다.



《만희네 집》

권윤덕 글·그림 | 길벗어린이 | 34쪽 | 값 7,500원

연립에 살던 만희가 이층 양옥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꽃밭, 옥상, 광, 장독대 등 그동안 익숙치 않았던 장소와 물건들이 눈에 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사를 간 만희네 이층 양옥집을 배경으로 우리 살림살이의 모습과 집안 곳곳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집 전체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집 내부를 상상해 볼 기회를 전해 주기도 하는 책. 아파트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면 좋다.